

대안교육 경험자의 삶 탐색: 배경, 진학동기, 교육경험, 진로, 가치지향

김영화*

논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안교육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대안교육 경험자 다섯 명을 심층면담하여 이들의 배경과 진학동기는 어떠하며, 이들이 대안학교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대안학교 졸업 후 대안교육의 가치와 어떻게 관계 맺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대안적 가치지향과 행위가 시간의 흐름 및 가정과 학교, 사회의 상황적 조건 하에서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대안학교 진학에는 부모님, 선생님 등 의미있는 어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대안학교 진학을 권유한 연구참여자의 부모님은 자연친화적이거나 생태주의적인 관점 또는 높은 사회의식을 가지고 계셨으며, 형제자매도 대안학교에 다녔거나 다니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안학교 경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밀도 높은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 대안적 가치라는 또 다른 고정관념의 주입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대신 대안학교를 선택한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하였고, 공통적으로 성찰의 과정을 거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었으며, 몸을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것, 자급자족하는 삶,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삶과 균형적인 삶, 사회의 구조적 모순 해결에 기여하는 삶, 기술과 더불어 문화와 사람을 생각하는 진정한 작업자 되기 등 대안교육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대안적 가치관과 삶은 이러한 가치관과 삶의 양식에 동조하는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교섭 속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주제어 : 대안학교, 대안교육 경험, 대안학교 졸업생의 삶, 생애사, 통합적 내용분석접근

* 홍익대학교 교육학 교수

2015년 2월 4일 접수, 7월 9일 최종수정, 7월 21일 게재확정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대안교육은 1990년대 중엽부터 대안학교라는 형태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2014년 현재 인가받은 정규학교 형태의 대안학교인 특성화고등학교가 24교, 특성화중학교가 12교, 인가받은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가 24교에 달한다(교육부, 2014). 2009년에 각 유형의 대안학교가 각각 21교, 8교, 2교였던 것에 비추어보면(이혜영 외, 2009) 5년간 학교 수가 거의 두 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는 2교에서 24교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안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2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 교육부 조사에 응한 대안교육시설 170개에 6,76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 2014). 2009년에는 94개 시설이 조사에 응하였고, 이 시설에 총 3,993명이 재학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보면(이혜영 외, 200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역시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안교육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할 무렵의 대안교육 또는 대안학교는 일정 정도의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또는 학교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점차 대안학교의 목적과 이념이 다양해져서 최근에는 대안학교 간에 어떤 공통적인 경향성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교육부(2014)는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을 교육목적별로 다문화, 탈북, 종교·선교, 국제교육, 미혼모, 부적응학생, 대안교육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인성, 인문, 특기·적성 계발, 전인교육, 자아발견 등 대안교육을 목적으로 한 대안교육시설은 2014년 4월 현재 시설 수로 보면 18.8%, 재학생수로 보면 18.6%에 그쳤다. 종교·선교 목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의 재학생수가 가장 많아 36.5%에 달하였고, 부적응학생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설의 재학생수가 다음으로 많아 33.2%에 달하였다. 최근 대안학교의 급증은 종교계 학교의 설립에 기인하는 바가 큰데, 2009년 기준 약 80여개에 달하는 기독교계 대안학교 가운데, 소수를 제외하고는 지나친 종교교육과 엘리트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이혜영 외, 2009)을 받고 있기도 하다.

대안교육기관의 증가와 대안교육의 다양화 등 대안교육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현상은 대안교육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안교육기관의

증가 현상은 대안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지만, 우리나라 대안교육에 대한 면밀한 이해에 바탕을 두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안교육을 선호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정규 공교육이 불만스러워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한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이후 어떠한 진로를 택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일반 정규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에 비해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 대안교육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학생·학부모들도 상당수에 달할 것이다.

대안교육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의 정체성 등 이념적 측면에서부터 제도화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히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어떠한 경험을 하며, 대안학교 졸업 이후 대안교육 경험을 삶에 어떻게 관련지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광범위하게 수행된 대안교육 관련 선행연구 가운데 대안학교 학생들의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총체적이고 깊이 있게 탐구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대안학교 학생들이 대안학교에서 실제로 겪는(은) 경험들을 탐구하는 연구들(강영택, 2010; 홍기순, 2010; 김영신, 2006; 고희일·이두휴, 1998)과 대안학교 졸업생의 졸업 후 삶의 경험을 밝히는 연구들(김영화, 2014; 이은실·강영택, 2011)이 수행되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의 대안학교 경험이나 대안학교 졸업 후 삶의 경험 등 일정 시기의 경험을 탐구하였으며, 대안학교 진학 이전의 단계부터 대안학교 졸업 이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대안학교 졸업생의 삶 전체를 다루어 한 단계의 삶의 경험이 다른 단계의 삶의 경험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안학교 졸업생의 삶의 궤적은 이들이 대안학교에 진학하기 이전부터 속해있던 가정과 지역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대학졸업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 사회적 상황과 교차되는 가운데, 부모, 형제자매, 친구, 교사, 직장 동료와 선후배 등 의미 있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어 간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학교에서 대안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어떠한 동기로 대안학교에 진학했는지, 이들이 대안학교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대안학교 졸업 후 대안교육의 가치와 어떻게 관계 맺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들

의 대안적 가치지향과 행위가 시간의 흐름 및 가정과 학교, 사회의 상황적 조건 하에서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상술하였듯이 대안교육기관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탐구 대상 대안학교를 역사가 비교적 오래되어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인가 또는 비인가 대안학교들로서 전인교육, 공동체주의, 생태주의, 노작교육 등 초창기에 설립된 대안학교들이 상당 부분 공유했던 진보적 가치를 추구해 온 학교들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졸업한 대안학교는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독교계 대안학교들이다.

II. 선행연구

대안교육 또는 대안학교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로는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대안학교 학생들이 대안학교에서 실제로 겪는(은) 경험들을 탐구하는 연구들(강영택, 2010; 홍기순, 2010; 김영신, 2006; 고형일·이두휴, 1998) 및 대안학교 졸업생의 졸업 후 삶의 경험을 밝히는 연구들(김영화, 2014; 이은실·강영택, 2011)과 대규모 조사를 통하여 대안학교의 실태를 밝히는 연구(이혜영 외, 2009)들이 수행되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대안학교에서 실제로 겪는(은) 경험들을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탐구한 연구들은 대안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대안학교에서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워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김영신(2006)은 도시형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시민성을 함양하고 있는지를 탐구한 결과, 학생들은 학교 전체의 민주적 생활환경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실천적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홍기순(2010)에 의하면, 학생들은 기독교학생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 유대감을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 요인은 교사와의 신뢰관계와 자율적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형일·이두휴(1998)는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의 교육활동을 비교하는 가운데 대안학교 학생들은 공동체의식과 교사-학생 간, 선후배 간 유대, 타협의 문화, 교사에 대한 지지와 신뢰, 학생 중심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기독교계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대안학교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대안학교의 성과를 보

다 직접적으로 확인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강영택(2010)은 기독교 대안 초등 학교와 중등학교 세 곳을 선정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관찰 및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신앙과 인성의 성장, 삶의 목표와 꿈 설정, 학업에 대한 자발성과 흥미, 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 구현 등을 대안학교의 성과로 제시하였다. 이은실·강영택(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기독교대안학교 졸업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출신 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졸업생들은 대안학교 교육을 통해 삶을 보는 시각의 변화, 상호신뢰의 인간관계 경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습득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졸업 후 어떠한 삶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들도 발견된다. 상술한 이은실·강영택(2011)의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 대안학교 졸업생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출신학교의 교육목표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으나 일부 학생들은 출신학교의 교육목표가 교육현장에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혼란을 겪고 있었다. 졸업생들은 각종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대학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학 수업에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지만,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특정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발견되었다.

최근에 수행된 김영화(2014)의 연구에서는 대안학교 졸업생 29명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집필한 에세이 가운데 졸업 이후 삶의 전개를 분석하고, 집필자 중 5명의 졸업생에 대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이들이 졸업 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안학교 졸업생들은 졸업 후 대학진학 여부를 결정할 때부터 대학생들과 대학 이후 진로 선택 과정, 사회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과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대안학교 졸업 후의 진로는 매우 다양하지만 많은 졸업생들이 고교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과 관심을 발전시켜 나가며, 현실의 벽에 부딪치면서도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졸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안학교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의식하지 않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경험이 자신의 삶에 반영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질적 연구들은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며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들의 시각과 해석을 통해 밝히는 한편, 이들의 인식을 통하여 대안교육의 성과를 간

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졸업생의 졸업 후 삶의 경험을 탐구한 연구들은 이들이 졸업 후 대학과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해 가고 있는지를 밝혀 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학생들의 대안학교 재학 중 경험(강영택, 2010; 홍기순, 2010; 김영신, 2006; 고희일·이두휴, 1998)이나 대안학교 졸업 후 경험(김영화, 2014; 이은실·강영택, 2011) 등 한정된 시기의 경험을 탐구하였으며, 대안학교 졸업생의 삶 전체를 다루어 한 단계의 경험이 다른 단계의 경험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맥락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김영화(2014)의 연구는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졸업 후 어떠한 고민과 성찰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진로를 어떻게 개척해 가고 있는지를 탐구한 연구로서 대안학교 내 경험을 넘어서서 대안학교 이후의 삶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대안학교 졸업 이후의 삶에 국한시켜 탐구하고 있으며, 대안학교 졸업생 다수(29명)의 사례를 수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통된 경험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개별 사례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이들의 사고와 행위가 가정과 학교, 사회의 상황적 조건 및 과거, 현재, 미래가 교차하는 시간의 고리 속에서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졸업생 다섯 명의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대안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어떠한 가정과 지역 배경 속에서 성장하여 어떠한 동기로 대안학교에 진학했는지, 대안학교에서 어떠한 교육경험을 하였고 대안학교 졸업 후 어떤 진로를 선택하였는지, 대안교육의 가치와 어떻게 관계 맺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의미있는 타인들과 사회의 상황적 조건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삶 전체의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두 종류로 구성된다. 하나는 다섯 명의 대안학교 졸업생이 집필하여 출간한 에세이이며, 다른 하나는 이 다섯 명의 졸업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한 자료이다.

(1) 대안학교 졸업생의 에세이

본 연구에서는 민들레 출판사에서 2011년 출간한 「우리, 잘 크고 있는 거 맞아요?」에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실은 에세이 형태의 글 중 네 명(김다숨, 김바다, 이슬아, 한나)의 글과 글담 출판사에서 2010년 출간한 「나? 대안학교 졸업생이야!」에 실은 글 중 한 명(김한성)의 글 등 총 다섯 명의 글을 기본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나머지 졸업생의 글을 보조적인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글담의 단행본에 실린 에세이는 대안학교 졸업생의 대안학교 진학 배경, 대안학교에서의 생활과 경험, 대안학교 졸업 후의 삶을 기술한 일종의 주제별 생애사²⁾이다. 민들레의 단행본에 실린 글들은 관계, 학습, 진로, 쓴소리 등 네 마당으로 나뉘어 마당에 따라 글의 초점이 다르지만 대체로 대안학교 진학 동기, 대안학교에서의 경험, 대안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두 단행본의 글 총 37편 가운데 졸업 이후의 삶에 대한 기술이 없거나 자신의 경험 이 아닌 허구적인 내용을 기술한 글 8편의 저자들을 제외시킨 후 남은 29명의 저자들 중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저자 15명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구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요청에 응한 다섯 명 모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저자들이 대안학교 졸업생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졸

1) 대안교육 경험자의 삶을 탐구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 중 김영화(2014)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각각 일부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연구방법의 기술 중 상당 부분은 김영화(2014) 연구의 연구방법 기술 부분과 중복된다.

2) 생애사는 출생 이후 전 생애에 관한 이야기인 전체 생애사(complete life history)와 일정 기간 중의 특정 주제에 한정된 이야기인 주제별 생애사(topical life history)로 나누어지며(박재홍, 1992; 엄명용, 2010: 270에서 재인용), 단행본에 실린 에세이는 이 가운데 주제별 생애사에 해당된다.

업생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생애사 등 질적 연구의 목적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일반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주변 인물 및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의미를 구성해 가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있으므로(박성희, 2004), 일부 졸업생의 다양한 삶의 궤적과 의미 구성 방식을 드러낸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대안학교 졸업생 심층면담

두 단행본의 원고 집필 이후의 삶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에서 알기 어려운 정보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다섯 명의 저자들에 대해 일대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민들레 출간 단행본에 기재되어 있는 저자들의 이메일 주소와 출판사를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저자들에게 심층면담을 요청한 결과,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군 복무중인 관계로 서면 면담에 응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2014년 7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면담에서 부족한 사항들은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보완하였다. 면담은 1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녹음하고 자료 분석을 위해 전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집필한 글을 일차적으로 분석한 후 면담을 실시했기 때문에 먼저 글 내용에서 불확실한 부분, 또는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 질문한 후, 이전에 쓴 글에서 생각의 변화 등으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글에서 다룬 마지막 시점 이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이때 가정배경, 진로 선택 동기, 졸업 후 고등학교(교사)와의 관계, 대학생활 경험, 직장생활 경험, 현실에 대한 생각, 미래 계획 등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 또는 직장생활을 해 나가면서 대안학교 졸업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의식하며 살았는지, 일반학교 졸업생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대안교육이 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면담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신앙이 이미 단행본의 출간을 통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하여도 추측하여 누군지 알아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설명

하고 논문 작성 후 본인의 확인을 거쳐 본인이 원치 않는 부분은 삭제할 것이라 말하였으나, 참여자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전혀 개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를 실명으로 처리하였고, 원고 집필 후 참여자들에게 인용된 면담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쳤으나 이의를 제기한 참여자는 없었다. 이들의 실명 처리로 이들이 집필한 에세이와 심층면담 결과가 일정 부분 긍정적 방향으로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들의 배경은 <표 1>과 같다. 이들은 금산간디학교, 산청간디학교, 한빛고등학교, 산돌학교, 하자작업장학교를 졸업했으며, 이 가운데 하자작업장학교를 제외한 네 학교는 모두 기독교계 대안학교이다. 연구참여자 중 네 명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후 4년제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한 명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대안학교인 하자작업장학교에 들어갔다. 한 명은 현재 대학 재학 중에 있으며, 네 명은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1명) 또는 취업(3명)하였다. 연령은 21세에서 33세에 이른다. 전공은 사회학과 정치학 복수전공, 철학, 광고홍보학, 신문방송학, 패션 등 다양하다.

〈표 1〉 심층면담 참여자의 배경

이름	연령 (만)	출신 대안학교/ 재학기간	대학 전공	직업(직장)
김다솜	24세	금산간디학교(비인가)/3년	사회학, 정치학, 평생교육	사회적협동조합
김바다	28세	한빛고등학교(인가)/3년	철학	대학원 철학과/군복무
김한성	33세	산청간디학교(인가)/3년	광고홍보학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현재 디자인회사 운영·기획
이슬아	21세	산돌학교(비인가)/5년	신문방송학	대학 재학
한나	31세	일반고 졸업 후 하자작업장 학교(비인가)/2.5년	대학 비진학, 이탈리아 패션학교 유학	의상실 개업 준비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통합적 내용분석접근(holistic-content approach)을 사용하였다. 통합적 내용분석접근은 리브리히와 동료들(Lieblich, Tuval-Mashiach & Zilber, 1998)이 제시한 네 가지 생애사 분석방법 중 하나³⁾로서, 개별 생애사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각 생애사의 중요한 주제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각 생애사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다(한경혜, 2004).

일반적으로 생애사 연구⁴⁾는 연구자가 면담을 통하여 확보한 참여자들의 구술자료에 대해 읽기와 쓰기를 반복하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내러티브 형태로 구성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Riessman, 1993). 단행본에 실은 글들은 대체로 대안학교에 진학하게 된 배경, 대안학교에서의 경험, 대안학교 졸업 후의 삶을 회고적으로 성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자체로 생애사에 해당되며, 여기에 심층면담 자료를 추가하여 연구참여자별로 확장된 생애사를 작성하였다. 생애사는 연구참여자의 배경 및 대안학교 진학 동기, 대안학교에서의 경험, 대안학교 졸업 이후의 삶으로 단계적으로 범주화하여 기술하였다. 이어 연구참여자의 생애사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각 사례가 각 단계별로 어떠한 주제를 특징적으로 드러내는지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생애사별로 드러난 주제들을 참여자들의 생애사 간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잠정적 가설⁵⁾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설정된 잠정적 가설별로 해당된 에세이와 심층면담 자료들을 분석하여 가설을 뒷받침하였다.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단행본의 글과 심층면담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일관성을 검토하였으며, 두 단행본에 실린 본 연

3) 이 외에 범주적 내용분석접근은 여러 명의 생애사 자료에서 공통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여러 명의 생애사를 분석하여 생애과정의 유형을 파악하고 사회문화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탐색하는데 유용하지만 개별 생애사 전체를 조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통합적 형태 방식은 생애사의 내용적 측면보다 각 생애사의 전체적 구조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며, 담론분석접근에서는 이야기의 조직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생애사 서술의 서사구조를 탐색한다(한경혜, 2004).

4) 생애사를 포함한 내러티브 연구법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흐름, 개인 및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이라는 내러티브적 공간 속에서 살아온 개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므로(김병욱, 2014), 대안교육 경험자들의 삶의 궤적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5) 여기서 잠정적 가설이란 연구 결과 25절에서 소제목으로 제시한 진술들(“연구참여자의 대안학교 진학에는 의미있는 어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등)의 주제분석 초기 형태를 의미한다. 즉, 주제분석 초기 단계에서 연구자가 잠정적(가설적으로) 추출한 진술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구참여자 외의 다른 졸업생들의 에세이 내용과도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 요약

사례 1: 김다솜

김다솜은 24세 여성으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금산 간디학교에 진학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수능을 보지 않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진학하여 사회학과 정치학 복수전공을 했고,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하였다. 3학년을 마치면서 대학에 대한 회의도 있었고 학비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여 휴학을 하고 전라북도 완주에 내려가 1년간 퍼머컬처대학교(현재 온누리살이학교로 개칭)라는 대안대학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동시에 8개월 정도 산촌유학센터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처음 내려갈 때는 대학을 그만둘 생각도 하였으나 1년 과정을 마친 후에는 복학하여 열심히 공부하였다. 올 초 졸업 후 다시 완주에 내려가 현재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한지 4개월이 되었다. 김다솜의 아버지는 인쇄업을 하시면서 환경운동을 하신다. 김다솜이 어렸을 때부터 도시농부로 집에서 농사도 짓고 계신다. 여동생이 둘 있는데 둘 다 대안학교를 다녔다. 첫째 여동생은 중등 대안학교인 산돌학교를 졸업하고 일종의 대안대학인 디자인 전문의 파티(PaTI, Paju Typography Institute)에 다니고 있다. 중학교 2학년인 둘째 여동생은 공동육아부터 시작해서 역시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사례 2: 김바다

어려서부터 사회적 문제의식이 강했던 28세 남성 김바다는 중3 담임교사의 권유에 의해 한빛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며, 수능을 치르고 수도권의 세칭 명문 사립대학교 철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 진학 후 인적자원양성소와 같은 대학에 실망하고 주로 동아리활동과 야학교사, 인문사회과학서점에서 독서 세미나, 환경단체 활동, 어린이 신문사 교사 등 학교 외부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휴학을 하기도 하다가,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고 교환학생으로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다녀왔다. 독일에서 돌아와서는 철학 공부에만 몰두하였고 대학원 석사과정 철학과에 진학하였다. 현재 철학교관으로 사관생도들에게 철학과 윤리학을 가르치면서 군 복무를 하고 있다. 김바다는 전남 고흥의 작은 농촌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어머니가 주로 농사일을 도맡아 하였고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틈틈이 집안의 농사일을 하셨다. 형은 지역의 명문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녔다.

사례 3: 김한성

김한성은 33세 남성이다. 중학교 졸업 후 공주 지역의 명문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나, 학교가 불만스러워 산청 간디학교로 전학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수능을 보지 않고 수도권 한 사립대학교 광보홍보학과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였고, 대학 졸업 후 하자작업장학교 청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그가 맡은 일은 하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었다. 2년간 하자센터에서 근무한 후 1년간 하사에서 자신이 참여하여 키운 음악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 공동대표로 경영에 참여하다가, 독립적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직장을 옮겨 3년 정도 근무하였다. 현재는 반년 전에 아내 및 친구와 함께 설립한 디자인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김한성의 아버지는 완벽주의 성향의 경영학과 교수였고(작년에 돌아가심) 어머니는 검소한 주부였다. 여동생도 한빛고를 다녔고, 대학에서 고고미술사를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불교미술사를 전공하여 현재 박사과정에 있다.

사례 4: 이슬아

이슬아는 만 21세 여성으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중학교 1학년부터 5년간 산돌학교에서 대안교육을 받았다. 산돌학교 졸업 후 1년간 자유롭게 지내다가, 수능을 치르지 않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하여 한 수도권 사립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한 문화잡지사(인턴으로 취직)한 후 몇 개의 잡지사(3년간 인턴으로 근무)에서 기자가 매력 있게 느껴지지 않아 기자의 꿈을 접고, 지금은 소설가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산돌학교 졸업 직후부터 참여하던 글쓰기 모

임 학평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지금은 3학년을 마치고 1년간 휴학하면서 학평회에 회원들이 매주 써가지고 가서 평가를 받던 글들을 낭독해주는 팟캐스트 라디오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문학상에 응모해서 수상하기도 하였고, 글쓰기 과외지도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 이슬아의 부모님은 도시에서 사시다가 남양주에 귀농하여 농사를 짓고 계신다. 연년생인 남동생도 산돌학교에 다녔다.

사례 5: 한나

한나는 31세 여성으로 경남 양산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하자작업장학교에서 대안교육을 받았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한나는 마스크를 통해 보았던 문화생활에 대한 동경이 있어 연고도 없는 서울행을 결심하였다. 우연히 집에서 신문을 읽다가 하자작업장학교에 대해 알게 되었고 대학을 포기하고 낙오자가 된 느낌을 갖고 있던 한나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점이 되었다. 하자 초기에 패션방에서 주로 작업하다가 패션의 방향을 한복 쪽으로 돌리고 한남직업전문학교에서 한복의상 디자인과에 등록하여 6개월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한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한남직업전문학교에서 만난 선배가 일하는 바느질방에서 1년 반 정도 바느질 기술을 배운 뒤 일감을 받아 집에서 혼자서 일을 하는 독립적인 바느질방을 갖게 되었으나, 만족스럽지 못하여 한복매장에 취업하였다. 그러나 한복집 역시 문제가 많아 3년 반 정도 일한 후 그만두고 서양복의 패턴을 배울 수 있는 사설학원에 등록하였다. 한나가 선택한 사설학원이 우연찮게 이탈리아 학교와 연결되어 있어 유학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간 학원에서 언어와 패턴의 기초를 배운 후 ‘인스티튜트 쎄폴리’라는 이탈리아 패턴전문 학교에 유학하여 2년간 공부하였다.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지 반년 남짓 지났으며, 현재 한복집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와 의상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의 부모님은 자녀의 일에 대해 방임적인 태도를 갖고 계셨다.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셨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조금 반대하셨지만, 어머니는 하고 싶েন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셨다. 동생은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나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

2. 대안학교 진학 동기 및 배경

(1) 연구참여자의 대안학교 진학에는 의미있는 어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연구참여자 가운데 김다솜과 이슬아, 김한성은 부모님의 권유로 대안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김바다는 자신의 고민을 이해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한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사가 권유하여 대안학교에 진학하였다. 한나는 일반고등학교 졸업 후 대도시 문화에 대한 동경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실현시키려는 생각으로 대안학교에 들어갔다. 한나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선생님 등 의미있는 어른들이 대안학교 진학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슬아의 부모님은 자녀가 입시준비에 얽매이기보다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하기 원하셨고, 김다솜의 부모님은 진보주의적인 자녀교육을 원하셨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권유하셨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이슬아는 “아빠가 이유 없이 추천하진 않겠다고 생각”하여 대안학교를 선택하였다. 장차 교사가 되고 싶었던 김다솜은 비평준화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명문 고등학교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던 중이었으므로 당시 ‘꼴통들이나 가는 학교’로 회자되는 대안학교에 진학하고 싶지 않았으나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에 ‘자발적인 복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다. 꼴통들이나 가는 대안학교에 가라니...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만약 대안학교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매일 야단이나 맞고 용돈은 쥐뿔도 없겠구나 싶었다.....부모님의 권유와 나의 자발적인 복종으로 간디학교에서 여는 계절학교에 참여하게 되었다.(김다솜, 259-260)⁶⁾

김다솜은 자신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의 권유로 대안학교를 선택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6) 저자의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성을 피하고 지면을 절약하기 위하여 저자의 이름과 쪽수만을 제시하였다. 해당 부분을 저서에서 찾아보려면, 김한성은 「나? 대안학교 졸업생이야」, 김다솜, 김바다, 이슬아, 한나는 「우리, 잘 크고 있는 거 맞아요?」의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엔 부모님의 권유로 대안학교를 선택한다. 부모의 정서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또는 대안적인 사고방식을 아이들에게도 심어주고자 하는 부모들의 동기가 아이들의 입학 동기가 된다.(김다솜, 260)

반면 김한성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가 불만스러워 대안학교로 전학한 사례이며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고를 친 적도 없고 학교 성적도 중상위권을 유지해 온 모범생이었으며, 따라서 별 생각 없이 공주 지역에서 명문으로 알아주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식 날부터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불만이 건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으며, 입학 후 7개월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22)”을 피할 수 없었다. 이것을 알아차리신 부모님은 겨울방학 동안 유예기간을 주신 후 산청 간디학교 진학을 권유하셨고, 갈 곳을 몰라 방황하던 김한성은 오래 망설이지 않고 간디 진학을 결정하였다.

.....“적어도 이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자퇴를 결정하기까지의 약 7개월의 시간이 나에게서는 그러한 시기였다.....그 학교는 명성답게 입학식 날부터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했다. 나는 그 사실에 약간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앞으로 3년을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 하고.....하지만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외부로 발산되지 못하고 있던 내 메시지를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알아차리셨다.(김한성, 20-22)

한편 전남 고흥의 작은 농촌에서 태어나 성장한 김바다가 대안학교에 진학하게 된 데에는 본인의 문제의식과 3학년 담임교사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김바다의 가정 형편은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고 김바다는 어렸을 때부터 하루종일 열심히 일하는 농촌 사람들과 TV에서 보는 도시 사람들 간 생활수준의 격차가 왜 생기는지 궁금해 했다. 김바다는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 「전태일 평전」, 「태백산맥」 등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다룬 책들을 읽으면서 자신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삶과는 다른 방식의 삶과 다른 모습의 사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었다. 또 선거 때 TV를 통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보면서 대단한 힘이나 경제적인 능력을 갖지 않고도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도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고민이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 싶었다.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담임선생님은 김바다의 이런 고민을 잘 이해해주셨고 계속 발전시키기를 원하셨으며, 한빛고를 추천해주셨다. 부모님은 지역의 명문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지만 선생님의 추천에 따라 한빛고에 진학하였다.

(2) 대안학교 진학을 권유한 연구참여자의 부모님들은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신다.

대안학교 진학을 권유하신 연구참여자의 부모님들은 모두 생태적인 관점이나 높은 사회의식을 가지고 계셨다. 김다솜의 부모님은 ‘486세대’ 정치 이념으로 무장하신 분들이다.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아버지는 김다솜이 어렸을 때부터 도시농부로 집에서 농사도 짓고 계시며, 생태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다. 역시 ‘486세대’인 이슬아의 부모님은 직업을 많이 바꾸시고 한마디로 “엄청 정처 없게 사신 분”들이다. 도에서 살다가 산속에 집을 지어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남양주에 귀농한 분들로서 공공연하게 생태주의자임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생태적 환경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사관리 분야 전공 경영학과 교수이셨던 김한성의 아버지는 주로 노동자 인권, 직무 스트레스와 같은 노동조건에 대해 연구하셨다. 아버지는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하시다가 발을 빼신 경력이 있으며, 그 부채감이 남아 학문 이외에도 사회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후원도 많이 하셨고,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녹색평론’과 같은 잡지를 구독하기도 하셨다. 이들의 형제자매들도 모두 대안학교에 다녔거나 다니고 있어 부모의 가치관과 가정의 문화가 자녀의 대안학교 진학 결정에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알려준다.

3. 대안학교에서의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대안학교의 경험으로 공동체주의와 파트너십, 여러 우물 파기, 잉여로운 생활, 일상을 공유한 헌신적 선생님 등을 듣고 있다. 이 외에 학교문제 해결에 주체로 참여하였던 민주주의 경험, 개인적 반항, ‘대안학교스러움’에 대한 애증, 부모님과의 괴리, 고정관념을 깨는 곳, 또 다른 고정관념의 주입 등을 듣고 있다.

(1) 공동체주의와 파트너십

연구참여자들은 대안학교에서 겪었던 가장 강렬한 경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공동체 또는 더불어 사는 삶을 꼽았다. 이슬아는 산돌학교 생활의 특징을 “끈적끈적한 공동체(13)”로 집약하여 표현하였다. 5년간의 기숙사 생활로 학생들 간에는 “너무나도 밀착된 관계(13)”가 형성되었고, 여기에 ‘공동체’를 강조하는 대안학교 특유의 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타인과 “조화롭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방법(14)”을 배워갔다. 김바다에게 한빛 생활의 절반을 차지하던 생활관은 “살며 공부하는(160)” 공간, “주위 사람들과 부딪히며 ‘무엇인가’가 형성되는 곳(160)”이었다. 김바다는 이 “무엇인가”를 “친구들과의 우정과 함께 사는 법이라는 화두로 채웠던 것 같다(160)”고 회고하였다. 김한성은 사람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간디 3년간 사람 알아가는 재미를 맛보았고 밀도 높은 인간관계는 졸업 이후 삶에도 좋은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동체적인 대안학교에서는 생활뿐 아니라 공부 면에서도 혼자 공부하고 경쟁하는 개인플레이 중심의 일반학교와는 달리 멤버십과 팀플레이를 강조한다. 한나는 하자작업장학교에서 여러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패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쌓아 가는 가운데, 팀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팀 작업을 통해 서로 주고받는 힘이 모여 혼자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큰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공동체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슬아는 공동체 경험에 대해 “괜찮은 터득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고 조금 슬픈 터득은 눈치 보는 법과 전체 분위기에 따라 내 욕구 누르기(14)”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덕분에 이슬아는 “전체에 잘 맞춰줄 수 있는 딱히 모나지 않은 사람(14)”으로 성장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지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도 공동체 생활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고 하였다. 김한성도 밀도 높은 인간관계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크게 작용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성장하기도 했지만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하였다.

(2) 여러 우물을 파는 교육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대안학교에서의 주요 경험으로 제시하였다. 이슬아는 산돌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여러 우물을 파는 교육(17)”이라고

표현하였다. ‘머리, 몸, 마음이 골고루 발전하는 통전성의 교육’이라는 학교 철학에 걸맞게 국토순례, 인도·네팔 여행, 인턴십 활동과 세 학생이 스승 찾아 떠나는 삼인행, 창업 프로젝트, 인문학 공부, 농사, 인지교과, 영상, 춤, 정리정돈의 정석을 배우는 쉼소 교육, 심리치료, 미술, 연극 등 5년간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김바다도 한빛고에서 경험했던 생태농업반 활동, 매 학기 가는 여행,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여러 가지 실용적인 기술들을 배워보는 시간(도자기반, 요리반, 옷만들기 반)을 유익하게 생각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하는 활동은 아니었으나, 다양한 경험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좋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우물을 파는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장점을 인정하였지만, 깊이가 없는 것을 문제시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개인플레이 잘하는 개인들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자기 안으로 파고드는 깊이 같은 건 조금 부족하지 않나.....영당이 내공도 우리가 부족한 게 확실하다.....여러 우물을 판 건 훌륭하지만 문제는 역시 ‘깊이’인 것 같다. 5년 동안 아무리 다양한 것들을 했어도 가끔 내가 뭐 하고 살았나 하는 회의가 드는 이유는, 빠져들고 몰두한 깊이가 얕기 때문이 아닐까. (이슬아, 16-17)

(3) 잉여로운 생활을 통한 배움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은 ‘잉여로운’ 생활을 하였다. 김다솜이 다녔던 금산 간디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자유 시간이 워낙 많아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피시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허다했다. 김한성도 산청 간디학교 1학년 1학기 마지막 한 달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본 적이 있다. 빡빡한 공교육제도 안에서 살아왔던 학생들은 간디에 입학한 후 집단적으로 급격한 무기력 상태에 빠져들었고, 한 달 간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교도 학원도 가지 않고 산책을 하고, 책을 보고,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김다솜은 일반학교 또래 친구들은 누릴 수 없는 이러한 여유로움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고쳐야 할 습관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으며, 취미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흥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간디학교에서의 잉여로운 일상은 “학생들의 잠재력과 욕구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265)”고 회고하였다. 김한성도 한 달 간의 유예 기간 동안

중요한 심경의 변화를 겪었던 것 같다고 회고하였다. 자신과 미래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일종의 불안감도 느꼈다.

(4) 현신적인 선생님과 공유하는 생활

김한성에게 간디 3년간 추억의 대부분은 선생님들과의 일이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에 이르렀던 선생님들은 정규교육에서 만난 선생님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고 학습의 수단이 교과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대부분의 생활을 공유했고 수업과 일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선생님들의 삶은 그 자체로 좋은 텍스트가 되었다(27),” 김바다에게도 선생님들은 따라갈 수 없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자의 덕목, 열정, 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5)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

김바다에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이후부터 고 3 여름까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이 나섰던 사건이다. 김바다가 최초로 경험한 큰 규모의 사회적 갈등이었고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갈등을 마주했던 경험이었다. 학교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고 학생들은 등교거부를 결정했다. 주저하는 친구들과 후배들을 설득해야 했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결정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했다. 광주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에까지 올라와서 학교의 상황을 알리고 일부 친구들은 전국 일주를 하면서 알리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라고 할 수 있을만한 결과를 얻었지만,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교육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의 주체이고 자신의 학교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김바다는 생각하고 있다.

(6) 반항

김다솜은 1학년 해방학기에 흠집도 짓고 농사일도 하는 한마음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겨 마음이 맞는 한 친구와 가출함으로써 첫 번째 반항을 하게 되었다. 2학년이 되면서 나름대로 이유 있는 반항을 계속했다. 학교 밖으

로 무단 외출, 외박 등 학교에서 금지하는 행동을 밥 먹듯이 했다. 김다솜은 공교육이라는 폭력적인 교육체제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은 부당함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쟁하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가출과 같은 반항은 공교육을 거쳐 대안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밟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태껏 객관적으로 자신과 사회를 보는 눈을 기르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반항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쟁하는 방법도 몰랐으니 표현 방법은 단순히 그런 식의 반항일 수밖에 없었다. (김다솜, 262)

(7) 학교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커져간 괴리감

김다솜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학교에서의 일상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였다. 가정학습 기간에 집에 돌아가면 학교에서 누렸던 자유를 잃어버려야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런 가운데 학교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괴리감이 점점 커졌다. 부모님은 자녀를 공부와 거리가 먼 대안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말씀은 못하셨지만 비슷한 잔소리를 하셨다. 집에 가면 책을 읽거나, 청소라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었다. “대안학교에 가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 대안적인 생각을 할 테니 철없는 어린애처럼 놀러나 다니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265)”에 친구들과 서울 구경이라도 나가면 부모님께 상처를 주게 된다.

김다솜은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기존 공교육에 대해 비판적이며, 자녀가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습득하기 원하지만, 동시에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경쟁력’도 기르기를 원하는 이중적 기준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자녀들이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시작하면 불안해하고 자녀를 구속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흥미를 찾거나 자유로운 사고를 시작하며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크게 불안해하며 아이를 구속하기 시작한다. 대안학교에 보낸 부모님이라 해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하게끔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대부분 적극적인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들의 불안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여러 가지 고민이야 하겠지만 결국 부모는 아이와 함께 대안을 모색해볼 엄두를 못 내고 그저 주류사회에 편입되기를 바라시는 거다.(김다솜, 266)

(8) '대안학교스러움'에 대한 애증: 대안학교 문화에 대한 권태와 저항

대안학교 생활을 오래 한 이슬아는 한편으로 대안학교에 호의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안학교 문화에 대해 권태로워 하고 비판적이다. 이슬아는 ‘가장 산돌스러운 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산돌학교 생활에 젖어 있었으나, ‘산돌스럽다’는 표현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산돌스러움은 대안학교 특유의 “생태적이고 촌스러운 느낌,” “가난하고 열악한 시설,” “공동체주의적인 분위기,” “무겁고 칙칙하며 세련되지 못한 교사들의 분위기,” “생명과 평화에 대한 감성”(11-12) 등을 합해놓은 말이다. 3학년 정도까지는 산돌스러움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4-5년간의 산돌 생활은 산돌에 대해 권태감을 느끼게 하였고, 산돌스러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공동체주의적 산돌학교에 살면서 개인주의적인 생활을 꿈꾸게 되었고, 가난하고 열악한 산돌학교에 살면서 돈과 자본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졌고, 촌스럽고 생태적인 산돌학교에 살면서 도시적이고 세련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12).” 대학에 가서는 산돌학교의 끈끈한 공동체적 삶에서 벗어나 혼자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려고 시도하였다.

전 대학에 가서 혼자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돌학교 대안학교의 진드함? 그런 우정들에서 약간 벗어나서 혼자 뭘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대학에 갔는데 여전히 대학의 여자에게도 화장실 같이 안가면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건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혼자 너무 신나게 잘 다녔어요. 도서관도 혼자가고 밥도 혼자 먹고 수업도 혼자 듣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자유로워서 좋았고, 음. 그 1학년 때는 주로 그랬던 것 같은데 2~3학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고, 대학에서 되게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이슬아, 면담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아는 다시 학교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면 대안학교를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산돌학교는 끊임없이 고민 -- 일반적이지 않은 -- 하게 만드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잘 가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고민하게” 했고 이것은 “조금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대안학교의 희망”(18)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산돌학교에 대한 감정은 ‘애증’의 감정 덩어리인 것이다.

(9) 고정관념을 깨는 곳과 또 다른 고정관념을 주입시키는 곳

연구참여자들은 대안학교에서 기존의 사고와 가치관에 도전하는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학습하였다고 생각한다.

한빛을 다녀서 내 눈은 더 밝아지고, 내 귀는 더욱 예민해졌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많은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온다.(김바다, 167)

저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친구들이 너무 예민해서. 이제 뭔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다 인권을 존중하자, 이런 구조적인 사회를 좀 탈피해서 새로운 걸 꿈꿔보자, 우리가 가능한 게 뭘까? 이런 토의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판의식이 너무 많으니까.....(김다솜, 면담자료)

한나는 이름을 스스로 지어 부르고, 경험의 차이는 있으나 나이에 따른 차별은 없으며,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하자 문화 속에서, 이전에는 무감각했던 다양한 차별과 부당한 권위에 대해 깨우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대안적 가치’라는 또 다른 고정관념을 내면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 이슬아는 공동체 수용성과 같은 사고방식이 “내 것인지, 아니면 교사들의 이상향에 대한 욕심과 가치관을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건지 헷갈(15)”려 하였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공부했다면 균형 있는 지적 훈련을 받았을텐데 대안학교에 다녀서 편협하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대안학교의 약점으로 지적하였다.⁷⁾

[대안학교에 가서 마이너스가 된 점은] 일반학교 공부를 성실하게 받았으면 골고루 발전했을 지적인 훈련. 대안학교를 다님으로써 되게 편협하게, 뭐 편협하게 자란 것? (이슬아, 면담자료)

한편 김한성은 대안학교 교사들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주관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쪽 이념에 매몰되어 다른 쪽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던가, 세상을 대결구도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워한다.

7)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슬아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산돌학교에서 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대안교육을 받았지만 사회비판적인 시각에 관심이 별로 없다. 스스로에 대해 정치적이지 않으며, 전혀 비판적이지 않으며, 대부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이슬아가 다니는 대학이 진보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적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모습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 대안교육을 봐도 딱히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여전히 교사들이 약간 이념과 관련된 대
결구도로 세상을 인식하는 게 많고.....(김한성, 면담자료)

.....주관이 있는 건 좋죠. 그거에 약간 매몰되어 있다거나 내가 좌파인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파랑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단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끔씩 제가 학교 가서 이야기 하거나 좀 그러거든요. 전 사회적기업 일
을 하다보니깐 사회적기업은 좌파한테도 우파한테도 전부 새로운 거고 저는 양쪽을 다 설득해
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뭐 내가 무슨 색이라고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하자고 그런
걸 하거든요. 경계에 있게 되고 여기저기 넘나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크게 별로 안 중요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한쪽에 계시니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김한성, 면담자료)

4. 대안학교 졸업 이후의 삶

(1) 연구참여자들은 대안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선택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대신 대안학교를 선택한 한나를 제외하고 나머
지 네 명의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서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기보다는 학력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안전한 선택 욕구 때문에
(김한성), 또는 일반 명문고가 아니라 대안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김
바다), 또는 속물적인 이유와 지적 훈련에 대한 갈망 때문에(이슬아) 대학 진학을 선택
했다(김영화, 2014). 김다솜은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살지 고민하다가 그냥 막연하게
학교에서 재미있었던 교과들이 철학수업이나 시사토론 이런 것들이 재미있게” 느껴져
서 사회과학부에 진학하였다.

이들이 자신의 대학 진학 동기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건, 그 이면에는 학력주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대학진학은 필수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를 비롯한 동기들은 대부분 수능 준비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대학은 가야 하는 곳이라 생각했고, 그에 따라 스스
로의 결정을 미화하기도 했다.(김한성, 29)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안교육과 대입준비교육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

었고, 대안학교 학생들도 대입준비는 대안학교 학생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대안학교에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죄책감을 갖기도 하였다(김영화, 2014). 김바다도 입시준비를 하면서 한빛고를 다녔어도 순수하지 못하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였고, 대학에 가서도 자신이 입시학원에 다닌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⁸⁾

(2) 연구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성찰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성찰의 과정의 거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주어지는 대로 시류에 편승하여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과 성찰을 되풀이하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대안을 찾아 나선다. 이슬아는 잡지사 기사를 희망하였으나, 잡지사에서 인턴을 해 본 후 그 희망을 접었다. 창작과는 거리가 먼 잡지 제작 과정이 매력 있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개 잡지를 경험하고 나니깐 정말 잡지사에선 일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힘든 건 어떤 일을 해도 힘들고 근데 힘들게 하고나서.....하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거를 당연히 감수하게 되잖아요. 근데 잡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별로 안 좋아하는 과정, 별로 안 좋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잡지가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고생해서 결국 되는 게 잡지기자라는 아니었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이슬아, 면담자료)

대신 소설가의 꿈을 품고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산돌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니기 시작하였던 글쓰기 모임 학평회에 5년째 계속 참여하면서 글쓰기 수련을 하고 있다. 매주 글을 써 가지고 가서 비평을 듣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학평회 글쓰기 수업은 이슬아가 가장 욕심내는 일이다. 문학상에 응모해 수상을 하기도 했고, 이를 계기로 글쓰기 개인 과외 교사로 채용되어 돈을 벌고 있다.

8) 김영화(2014)의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생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에 진학해서는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나가기 어려운 대학(김바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대학생들(김다솜)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기도 하였다. 전공이 적성에 맞고 수업이 만족스러워 열심히 공부하기도(김다솜, 김한성) 하였으며, 대학의 수업보다는 다양한 학외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향해 성장해 가기도(이슬아) 하였다.

그냥 저는 창작하는 사람, 자기 글 쓰는 사람. 내가 무언가를 힘들게 노력해서 수련해야 된다면 잡지쟁이 수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글 쓰는 사람이 하고 싶다..... 결국에 되고 싶은 것은 소설가 되고 싶어요.(이슬아, 면담자료)

탁상공론식의 공부라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김다솜은 대학 3학년을 마치면서 고민 끝에 연고도 없는 전라북도 완주에 내려가 퍼머컬처대학교라는 대안대학 과정을 밟았다. 완주에 내려갈 때에는 대학을 그만둘 생각을 하였지만, 세대 간 대화도 잘 안되었고, 또래친구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고, 젊은 여성이 혼자 내려와 있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불편하여 1년 과정을 마친 후에는 다시 복학하였다.

대학 졸업 무렵 김다솜은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다. 원래는 시민단체나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곳에 실습을 나가거나 일을 해 보니 이상은 좋은데 현실에서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히 가고 싶은 직업도 아닌데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많이 고민하다가 기술을 연마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완주에 내려가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에 취업하였다. 현재 경리를 담당하면서 기술도 익히고 있다.

이상은 좋은데 현실에서 이걸 풀어내는 방법이 정말 저랑 잘 안 맞았고 그런 것들에 조금 스트레스가, 사회 전선에 뛰어 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어딘가를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고 가도 약간 비슷했고 제 경험상 그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별로 취업에 노력을 굳이 안했어요. 내가 뭐, 제가 너무 가고 싶던 직종이 아닌데 이렇게 내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김다솜, 면담자료)

한나는 하자작업장학교 초기에 패션방에서 주로 작업하면서 자신이 패션 쪽 일에 어울릴지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패션의 창조적인 면은 좋았으나 상업적인 면을 배우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패션의 방향을 한복 쪽으로 돌리게 되었다. 한남직업전문학교에서 한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한나는 기술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한남직업전문학교에서 만난 선배가 일하는 바느질방에서 바느질 기술을 연마하였으나 바느질방 일의 성격, 도제방식, 일터가 아니라 가족 같은 그러면서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한복계의 피라미드 구조와 관습 전반에 대해 회

의하게 되었다.

한복이 먹고살기 위해 하는 단순한 일이 되고, 내 스스로가 한복 만드는 기계가 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떠올라 공포 아닌 공포가 되었다.(한나, 200)

디자인은 매번 똑같고, 어디로 가고 누가 입는지도 모르는 옷을 만드는, 기술이 느는 것 빼고는 의미없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했다. 항상 실수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했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나를 무척 지치게 했다. 조금씩 소모되는 느낌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한나, 202-203)

한복 일을 하면서 “아무런 문화적인 배경과 자극 없이, 창조적인 생산 없이, ‘골방에 갇혀 바느질만 하는 것’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것(204)”을 깨닫게 된 한나는 한복을 판매하는 한복집을 거쳐 이탈리아 패턴전문학교로 유학을 떠나 2년간 공부한 후 작년에 귀국하였다.

김한성은 대학 졸업 후 하자작업장학교 청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대안교육이 기존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라면 사회적기업은 경쟁 일변도의 기존 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 일관성을 찾으면서, “창의성을 발휘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도록(32)” 만드는 이 일에 매우 만족스러워하였다. 그는 몇 차례 일터를 바꾸었으나 일터들이 모두 사회적기업 분야에 속해 있었다. 사회적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선행이 별로 없는 새로운 분야여서 김한성은 새로 개척해 나가는 맛과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김영화, 2014).

그러나 사회적 기업 분야는 인지도가 낮아데다가 근로조건도 열악하고 자신을 다 던지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정도로 일이 많아 가족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일중독’이셨던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후 일과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다가 보다 여유 있고 균형적인 삶이 가능한 일을 찾아 디자인 회사를 설립,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3) 연구참여자들은 나름대로 대안교육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몸을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것’, ‘자급자족하는 삶’, ‘사회적으로 기여

하는 삶과 균형적인 삶, ‘사회의 구조적 모순 해결에 기여하는 삶’, ‘기술과 더불어 문화와 사람을 생각하는 진정한 작업자 되기’ 등 나름대로 대안학교에서 배운 대안교육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몸을 잘 쓰는 사람 되기

이슬아의 미래 계획은 ‘몸을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산돌학교에서 배운 것은 언제 어디서나 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산돌학교에서는 농사 짓기, 요가, 청소 등 몸을 쓰는 활동을 많이 시켰고, 우리가 이 큰 자연에 비해 얼마나 작고 무력한지를 많이 가르쳤다. 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슬아는 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몸을 잘 쓰는 인간이 되고 싶어 춤을 배웠다. 올해 라틴댄스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려고 준비 중이다. 이슬아가 일 년간 수행했던 누드모델 활동도 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년 동안 누드모델로 일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이고 아까 말했던 한겨레 문학상에 냈던 글도 누드모델 했던 경험을 토대로 쓴 소설이 [당선]되어서 이렇게 된건데.....제가 사람 몸 특히 막 뭐가 그 누드를 잘 그리는 화가를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리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지는 사람은 어떨까 해서 내가 살면서 꼭 경험해 보고 싶은 일이다 했는데 마침 그것에 페이와 일의 시스템을 듣게 되고 충분히 안전하고 재미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사실 누드모델도 정말 너무 너무 흥미로운 세계여서...(이슬아, 면담자료)

몸을 잘 쓰는 사람에 대한 동경은 김다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다솜이 완주에서 퍼머컬처대학 과정을 밟기로 결정한 것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순수한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아겠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학교에서 탁상공론식의 공부가 아닌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에. 저는 기술도 별로 없고 그래서 손으로 할 수 있는 노동, 순수한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보아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에 학교를 그때 당시에는 그만 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1년 내려가 있었던 거예요.(김다솜, 면담자료)

자급자족하는 삶

김다솜의 꿈은 자급자족해서 사는 것이다. 소비를 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자본과 거리를 두고 “농사짓고 커뮤니티 만 들어서 교환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게” 김다솜의 막연한 꿈이다.

사람들이 자꾸 소비지향적인 삶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자연이랑 일치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래서 진짜 산골 마을에서 차 같은거. 물론 경제활동을 하죠. 장터에 나가서 판다든지 소극적인 경제활동을 해도 소비하려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건 좀 안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급자족, 말이 좀 어렵고 너무 거시적이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좀 살아보고 싶어요. 지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회학 공부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내가 진짜 그야말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뭔가 자본과 조금 떨어진 삶을 좀 택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 사는 삶 자체가 저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것을 표현해 내면서 사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사실 그렇지 못하는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재미있겠다,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어요.(김다솜, 면담자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삶과 균형적인 삶

김한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간디학교에서 얻은 것을 삶에서 구현하며 사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이전에는 간디학교를 통해 누렸던 혜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사회적기업 활동도 사회가 지지 않는 짐을 대신 진다는 맥락에서 바라보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간디학교에서 받은 것들을 잘 삶에서 구현하면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부분에서 최근과 이전이 조금 다른데요. 전에는 내가 좋은걸 받았으니깐 난 사회에 기여해야해 그래서 사회적기업일도 하는 거고 그런 쪽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지지 않는 짐을 대신 지는 거죠.(김한성, 면담자료)

그러나 사회적기업 일을 하다가 ‘번아웃’을 겪게 되고, 일중독이셨던 아버지까지 돌아가시자, 김한성은 간디학교에서 받은 것을 구현하며 사는 것은 개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행복은 균형적인 삶에서 나온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한번 번아웃을 겪었어요. 몸과 마음도 소진이 돼서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서 한 달 동안 안 나가고 그런 것을 겪고 이거는 기여하는 건 좋은데 너무 스스로를 갉아 먹네? 그래서 [간디학교에서 받은 것들을 잘 삶에서 구현하면서 사는 것이란] 개인의 행복,

개인이 행복하게 사는 게 이제 그때 내가 겪었던 어떤 컨셉? 가치? 그런 것을 실행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겨울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김한성, 면담자료)

그래서 결론은 제가 있었던 분야에서는.....가족 간의 최소한의 시간이랄지 여유랄지 그런 것들을 좀 확보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두 달 정도 준비해서 창업을 했어요. 그런 균형을 줌. 그 전까지 보다는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삶이 가능한 그런 일을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된 거죠.(김한성, 면담자료)

김한성은 디자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창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행복의 수위가 유지된다면 기업의 매출과는 상관없이 성공적인 창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이걸 제가 그 일 자체도 해볼직 하니깐 하겠하지만 이걸 하게 된 것은 내가 웹 관련 디자인을 해야지라기 보다는 예를 들면 남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좀 출퇴근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 차원으로 그걸 택한 거기 때문에 그 수위가 유지 된다면 그 기업의 매출과는 상관없이 성공적인 창업이라 할 수 있겠죠.(김한성, 면담자료)

현재 이슬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돈벌이, 그리고 사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따로 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월세 내는 일에 아등바등하지 않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민폐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이슬아의 과제이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잘 끌고 가는 어른들을 보면 정말 축복인 것 같다고 말한다.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내가 벌어야 되는 돈 그리고 뭔가 2014년에 사지가 멀쩡한 여자애로써 적어도 내가 무슨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사회에 민폐를 끼치고 살진 않아야겠다라는 생각? 사회에 민폐 끼치지 않는 거 그리고 돈 버는 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이 세 가지가 따로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어디 가서 따로 하고 알바는 어디 가서 알바만 힘들게 따로 하고 정치는 어디 가서 따로 하고 이거 말고, 어떤 어른들은 보면 그 세 개를 동시에 한 일로 잘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거든요.(이슬아, 면담자료)

사회의 구조적 모순 해결에 기여하는 삶

김바다는 고등학교 때 4월 19일이면 학생들이 함께 등산을 하고 한국 현대사에서 4.19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론하였으며, 5월 18일에는 도보 순례를 하고 주먹밥 나눠주기 행사나 민주화항쟁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는 행사에 참여하고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축적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는 그런 신념에 따라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바다가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것은 철학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관심, 독일에서 교환학생 경험, 그리고 학부 때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게 된 ‘철학의 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 김바다는 ‘철학하기’가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철학이 한 개인의 삶을 투명하게 이해하고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로부터 개인의 삶을 성찰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 사회의 구조를 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계속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이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김바다, 서면면담자료)

기술과 더불어 문화와 사람을 생각하는 진정한 작업자 되기

한나는 하자작업장학교에서 “작업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항상 생각하라(198)”고 배웠고, 지금도 이러한 배움을 실현하고 싶어 한다. 상업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와 철학이 반영된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한다.

바느질방에서는 하자에서 배운 것을 실현할 길이 없었다. 바느질방은 공방이 아니라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단순한 바느질방에 불과했고 장인이 아니라 옷 만드는 기계와 다름없는 기술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창조적인 모습이나 더 좋은 한복문화를 만들려는 모습(197)”, “문화와 철학, 한복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느껴지는 이야기(197)”를 찾아볼 수 없었다. 기술 뿐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고 철학을 이어간다는 기대는 깨지고 말았다.

한나는 이탈리아 유학에서 귀국한 후 자기 옷을 입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원단으로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어 입히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의상실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신의 스타일을 만드는 작은 가게들과 공방들을 확대시키고, 장인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도 조심스레 밝혔다.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부띠끄, 소규모의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작은 가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옛날 70~80년대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예를 들자면 홍대 같은 곳에 작은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복궁 서촌 쪽에 작은 공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방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느낌.(한나, 면담자료)

한나: 사람들의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는데 일조하고 싶은 느낌. 이걸 단순히 판다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왜 장인이 없을까?.....장인이나 기술이나 공방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하려고[높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서...

연구자: 장인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건가요?

한나: 그러고 싶어요. 아 근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4) 연구참여자들이 추구하는 대안적 가치는 대안적 가치에 동조하는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교섭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

대안학교 졸업생이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대안적 가치와 대안적 삶은 이러한 가치관과 삶의 양식에 동조하는 부모, 형제,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교섭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 김다솜은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며, 동생들도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고, 남자친구도 대안교육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대학을 일 년간 휴학하고 다닌 전주 퍼머컬처대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대학졸업 후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만난 사람들도 대부분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김다솜은 자신이 있었던 ‘판’이다 ‘대안학교스러웠다’고 말한다.

김다솜은 자신이 농촌에서 퍼머컬처 대안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에 취업한 것에 대하여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부모님이 안 그래도 도시농부라고 해서 집에서 텃밭도 가꾸고 지내세요. 생태적인 관점에 대해서 되게 이해도 높으시고 그래서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에 퍼머컬처 대학교라고 전라북도

완주에 대안대학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생겼어요.(김다숨, 면담자료)

김다숨은 과거 부모님이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주류적인 기대를 많이 하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부모님을 존경하며, 자신의 역할모델이라고 말한다. 부모님도 지금은 주류적인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서 살고 계시고, 자녀들도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아빠가 워낙에 사고가 조금 트여있고 그런데서 마찰도 살짝 있긴 했지만 심하진 않지만 있었고, 지금은 이제 자녀들한테 기대를 안 하세요. 옛날에는 주류적인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하지 않고 내가 또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를 하니깐 믿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나 셋째한테는 터치를 거의 하지 않고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살게 내버려 두고 엄마 아빠도 귀찮아니 귀찮아서 너무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동네 커뮤니티도 해서 농사도 많이 짓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부모님은 나한테 기대하지 않고 부모는 자기 삶을 새로운 삶을 개척해서 살고 있고 주류적인 시선에서 얽매이지 않는 거죠.(김다숨, 면담자료)

김다숨은 대안교육 덕분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윈윈(win win)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혼자 대안학교에 다녔으면 지금과 같이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며, 부모님도 학교에 자주 오시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부모교육도 받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부모님은] 대학에 안가는 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많이 변했어요. 이때[김다숨이 에세이를 쓸 때]와 지금은 부모님은 많이 다르고 [학부모를 위한 대안학교] 재교육 그게 너무 좋은 측면인 것 같아요. 애들은 머리가 이만큼 크는데 어른들은 이제 뭔가 일상적으로는 별로 대안적이지 못한...(김다숨, 면담자료)

저 혼자 대안학교를 다녔으면 저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같이 다녔거든요. 다닐 수밖에. 동기를 모임도 있고 자꾸 학부모들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김다숨, 면담자료)

김다숨과 같이 산돌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파티 대안대학에 다니고 있는 첫째 동생도 ‘대안스러운’ 성향을 지녔다. 동생도 김다숨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이 생각을 예술로 표현한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만 좋아했고, 지금 파

티에서 매우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다. 조직생활에 잘 맞지 않는 타입이어서 일반 대학에 진학했으면 많이 힘들어했을 것이라고 김다솜은 생각한다.

김다솜은 퍼머컬처 대안대학과 산촌유학센터,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비롯해서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연고를 맺고 있다. 아버지도 환경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름아름 서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대학 졸업 후 취직한 협동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서로 알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그만 둘 수는 없으며, 끝맺음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완주에 연고도 이제 생겼잖아요. 이전에 퍼머컬처 학교도 다니고 연고도 이제 많이 생기고 주변 분들이랑도 연락도 많이 하고 지냈었어요.(김다솜, 면담자료)

.....그렇다고 해서 워낙에 관계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름아름해서 다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이예요. 여기서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무책임하게 그만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완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기왕에 시작한거 맺음은 지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다니고 있어요.(김다솜, 면담자료)

김바다가 철학을 계속 공부하겠다고 결정하게 된 데는 김바다가 만났던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특히 철학, 문학, 역사 선생님들은 이러한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셨으며, 대학의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그리고 부모님도 철학을 공부하는 것을 늘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었다. 김바다는 “철학과 나오면 뭐먹고 사니?”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았고 주변에서 격려하는 말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의 진로 결정에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근본적인 부분이었고 그 문제의식을 주변에서 잘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은 고등학교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도 저를 늘 격려해주었다는 게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김바다, 서면면담자료)

김한성은 첫 직장으로 대안학교인 하자작업장학교에 취업하여 사회적기업이라는 대안적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일을 개척해 나갔다. 이슬아는 학교에 기반을 두지 않고 만난 친구들과 함께 인디잡지를 만들

고, 학평회라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평회에서 축적한 글들을 낭독해주는 팟캐스트 라디오 운영에 참여하는 등 정규학교의 틀 밖에서 비슷한 가치지향성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이 희망하는 소설가의 꿈에 다가가고 있다.

5. 대안적 가치지향성의 뿌리와 대안교육의 역할

- (1)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의 삶의 태도나 양식에는 대안학교 졸업 여부보다 그 이전의 환경에 의해 형성된 개인적 성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성향이 대안교육을 통해 강화된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느 학교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는지 보다는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삶의 궤적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삶의 태도나 양식은 대안학교 3년의 경험보다는 그 이전의 환경이나 부모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성향이 대안교육을 통해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대안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 학교 졸업자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사회에 갓 발을 내디뎠을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각자 자신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3년간의 대안 교육이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전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개인의 습성이나 지내온 삶의 관성은 생각 이외로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한 몇 년간의 교육으로 삶의 차이를 이야기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김바다, 서면면담자료)

다양한 경험을 해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가는 대안학교 이전의 생애에서 구축이 되는 거 같거든요.....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어떤 태도랄지 스타일이랄지 경향이랄지 이런 것은 대안학교 3년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구요.....절대 대안학교의 어떤 과정들이 바꾸지 않는 개인의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있었구요. 그렇다면 개개인의 차이가 대안학교의 졸업여부보다 예를 들어 졸업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결정하는 더 큰 요소가 그 이외의 경험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김한성, 면담자료)

특별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대개 함정인 것 같고 내가 뭔가 특별하다면 그건 대안학교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준 유전자 혹은 중요한 시기에 만난 사람? 물론 대안교육도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겠지만. 누구나 나이를 헛먹지 않고 제도권 학교에서 굉장히 흔한 학교생활을 한 애들도 그게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기엔 너무 선부르고...(이슬아, 면담자료)

이슬아는 산돌학교에는 좋은 글쓰기 교사들이 많았고 글을 많이 쓸 수 있어 자신이 작가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산돌학교 때문에 자신이 작가가 되려고 생각했고 작가의 재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모님의 문학적 관심과 재능, 집안 분위기가 산돌학교 진학 이전부터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며, 따라서 일반 학교에 갔더라도 다소 돌아가기는 했겠지만 결국 문학과 창작에 매력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일반학교에 간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산돌학교에서는 좋은 글쓰기 교사들이 많았어요. 되게 많이 쓰게 하고 일기 쓸 시간, 내가 내 마음을 담는 글을 쓸 시간을 많이 줬고 그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엄마, 아빠도 문학 소년이었고 문학 소녀여서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산돌학교 가기 전부터, 뭔가 집안의 분위기 같은 거여서 아마 일반학교에 갔어도 다른 약간 돌아가거나 약간 달랐겠지만 결국 문학과 창작에 대개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이슬아, 면담자료)

그러나 이들이 대안교육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안적 가치관은 대안교육을 받기 이전부터 싹트기 시작했으며, 대안교육은 이러한 싹을 틔우고 성장시켰다고 생각한다. 김한성은 사회의식이 강한 아버지의 성향과 가치관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쳐 자신도 잠재적으로 이러한 성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대안교육을 받으면서 가치관이 확고하게 형성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학교에 다녔더라면 아버지 친지들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공부만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한성: 그 전에는 흐릿했다가 이제[대안교육을 받으며] 확 색깔이 짙은 어떤 것에 몸이 확 당겨지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비로소 그 세계관이 형성된 느낌이구요.

연구자: 원래 그런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세요? 본인이 그런 어떤...

김한성: 부모님의 성향에 따르면 있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제 십대 때는, 간디 이전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간디학

교를 안 갔어도 그대로 컸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면 잘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 내 주변의 아버지 동료의 자녀들 완전 공부만 하는 편이었거든요. 거기서 저희만 재네는 공부를 왜 그렇게 안 시키지? 그런 존재였지 그 주변에는 전부다 유학과 아버지에 그런 친구들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구요. 거기[일반학교에] 있었으면...(김한성, 면담자료)

김한성이 첫 직장으로 하자작업장학교를 선택한 것도 대안학교의 영향이 크다. 대학생 때는 간디학교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고 하자센터는 간디와 동료 같은 단체였기 때문에 마음의 고향과 멀지 않았다. 하자센터는 익숙한 분위기였고 어떤 느낌인지 예상할 수 있었다.

[주류 기업들이] 후보에는 그래도 있었죠. CJ랄지 약간 문화 콘텐츠 많이 하는 SM엔터테인먼트랄지 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 시도가 하자센터였고 그게 탈락 되어 버렸고 그리고 간디학교의 영향, 심리적으로 여전히 그 대학생 때는, 지금은 약간은 다른 느낌이지만,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거든요. 간디 학교가. 그러니까 하자센터도 마음의 고향과 멀지 않은 곳이죠.(김한성, 면담자료)

하자센터도 익숙한 분위기이고 어떤 느낌일지 알고, 예상이 되잖아요. 어떤 직장일지. 그리고 거기 가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멋진 어른들이 많았거든요. 인격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도, 하고 있는 커리어 면에서도 저런 어른처럼 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40대 30대 후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김한성, 면담자료)

V. 결론

본 연구는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대안학교 진학과 대안적인 삶의 선택에는 자연친화적이거나 생태주의적인 관점 또는 높은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역할과 이러한 가정의 문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세 명의 연구참여자들은 형제자매들도 모두 대안학교에 다녔거나 다니고 있어, 부모의 가치관과 가정의 문화가 자녀의 대안학교 진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 본인들도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대안학교 3~5년의 경험보다는 그 이전의 환경이나 부모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으며, 대안교육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대안적 가치관의 싹을 발현시키고 성장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다. 대안적인 생활을 하는 부모는 연구참여자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존재로서, 연구참여자의

역할모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자녀가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기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자녀들은 갈등을 겪게 되고, 대안학교 졸업 후 대안교육을 통해 배운 대안적 가치들을 삶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안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님이 변화되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지금과 같이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김다솜의 생각은 부모가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녀와 함께 대안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에서 학부모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이해영 외(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대안학교 경험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⁹⁾ 사안에 따라 냉철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공동체주의와 파트너십, 여러 우물 파기, 잉여로운 생활, 일상을 공유한 헌신적 선생님, 고정관념 깨기 등을 대안학교에서의 경험으로 꼽으며, 이러한 경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밀도 높은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와 대안적 가치라는 또 다른 고정관념 및 한쪽 이념에 매몰되어 세상을 대결구도로 바라보는 관점의 주입 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였다. 특히 다른 참여자보다 대안학교 생활을 오래 한 이슬아는 한편으로 대안학교에 호의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안학교 문화에 대해 권태로워 하고 비판적이다. 이슬아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산돌학교에서 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대안교육을 받았지만 사회비판적인 시각에 관심이 별로 없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대안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어떻게 소화하는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며, 학생들이 대안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대안학교에서는 대안교육을 통해 대안적 가치가 또 다른 고정관념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주류 가치를 포함한 다양한 가

9) 이해영 외(2009)가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생활의 즐거움, 학교 운영에서 학생의 요구 반영 정도, 학생의 개별성 존중 정도, 학교에서의 공동체 체험, 교육과정의 지향, 학교교육의 효용성, 교육내용의 적합성과 난이도, 수업의 다양성, 평가에 대한 지향, 학교 시설·설비의 양과 질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대안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교육만족도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대안학교 학생들의 만족도가 일반학교 학생들의 만족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들을 균형 있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경쟁적인 대입준비교육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도 학력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진학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일반고를 졸업한 후 대안교육기관에 들어간 한나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참여자들은 대안학교 졸업 후 모두 대학에 진학하였다. 대학 진학 이유를 다양하게 제시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학력주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대학 진학은 필수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해영 외(2009)의 조사에서도 대안학교 학생들은 대다수가 대학교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다. 조사에 응답한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83.6%가 국내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고, 해외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이 6.9%에 달하였으며, 취업(3.7%)과 창업(4.7%)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소수에 그쳤다.

대안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대안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들이 대안교육 이념에 충실하게 교육을 받더라도 대학 진학에 낙오되지 않도록 대입전형을 운영하는 한편, 수준 높은 대안대학의 설립·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도 수능을 보지 않고 입학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화(2014)는 대학 또는 전공에 따라 대안교육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하여 대안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들이 별도의 대입준비교육 없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듯이(이혜영 외, 2009) 대안교육이 ‘입학사정관 시대’에 대학 진학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새로운 ‘스펙’으로 작용하는 폐단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성찰의 과정을 거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나름대로 대안학교에서 배운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 ‘몸을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것’, ‘자급자족하는 삶’,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삶과 균형적인 삶’, ‘사회의 구조적 모순 해결에 기여하는 삶’, ‘기술과 더불어 문화와 사람을 생각하는 진정한 작업자 되기’ 등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정신과 지식’, ‘자본주의적 소유와 소비’, ‘개인의 성공’, ‘과학과 기술’을 지향하는 주류적인 가치와는 차별화된 가치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것은 대안교육이 졸업 후에도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섯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대안적 가치관과 삶은 이러한 가치관과 삶의 양식에 동조하는 부모, 형제,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교섭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다녔던 형제자매, 대안교육분야에서 일하는 남자 친구, 대안분야에서 일하는 동료, 자신의 선택을 지지하는 선생님과 친지 등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양식을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고 있었다. 귀촌과 귀농의 증가, 시민사회의 성장, 사회적 경제와 기업의 확대, 창업의 증대 등을 통해 대안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터가 확장되고 주변에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타인들이 늘어날수록 대안적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안교육의 의의를 반드시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과의 연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안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안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인교육을 통하여 어느 영역에서나 원활하게 소통하며 균형있고 바른 자세로 삶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을 성공적으로 길러냄으로써 졸업생들이 어느 곳에서나 자기의 몫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안교육의 궁극적인 의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Lieblich, A., Tuval-Mashiach, R. & Zilber, T. (1998). *Narrative research: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Reissman, C. K. (2002). *Narrative methods for the human sciences*. Thousand Oaks, CA: Sage.
- Tierney, W. G. (2000). "Undaunted courage: Life history and the postmodern challenge." In N. K. Densin & Y. S.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 London: Sage. 537-565.
- 강영택 (2010).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성과에 대한 질적 연구." 『신앙과 학문』. 15(1). 31-58.
- 고형일 · 이두휴 (1998).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의 교육활동 비교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8(2). 127-162.
- 교육부 (2014). "14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 교육부 보도자료.
- 김병욱 (2014). "질적 연구유형별 정당화 논거 탐색: 내러티브 연구법과 담론분석법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4(1). 55-76.
- 김영신 (2006). "시민성 교육으로서의 대안학교 이해: 꽃동산 학교의 사례에 관한 질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38(3). 1-38.
- 김영화 (2014). "대안학교 졸업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육사회학연구』. 24(3). 195-215.
- 김한성 외 14인 (2010). 『나? 대안학교 졸업생이야』. 서울: 글담출판사.
- 박성희 (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원미사.
- 박재홍 (1992). "한국사회 세대문제: 한국 사회사 연구." 『한국 산업사회의 현실과 전망』. 38. 11-66.
- 양영자 (2008). "농촌노인부부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재구성." 『한국사회복지학』. 60(1). 127-157.
- 엄명용 (2010).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가족관계학』. 14(4). 261-298.
- 이슬아 외 21인 (2011). 『우리, 잘 크고 있는 거 맞아요?』. 서울: 도서출판 민들레.
- 이은실 · 강영택 (2011). "기독교대안학교 졸업생들이 인식하는 교육성과에 대한 질적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26. 481-515.
- 이혜영 외 (2009). "대안학교 운영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경혜 (2004). “생애사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 24(4). 87-105.

홍기순 (2010).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대안학교 중고생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 15(3). 327-356.

Abstract

A Study on the Life of People Who Experienced Alternative Education

Young-Hwa Kim (Hongik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how the alternative values and behaviors of people who experienced alternative education have been structured and changed over time while they have interacted with significant others under the situational conditions of family, school and society by examining their background and motivation of entering alternative schools(ASs), their experiences in ASs and ways of leading their life after graduation from ASs. Significant adults such as parents or a teache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hoice of ASs. Parent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ho recommended ASs to their children have ecological views or a high level of social consciousness. Brothers and/or sister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lso went to ASs. While participants tended to perceive experiences at ASs such as community consciousness, various activities, learning through slow life, life sharing with devoted teachers and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normalization of school positively in general, they were somewhat concerned about being hurt because of too close human relationships and the indoctrination of progressive values which are also a different kind of stereotyped notions. All but one participant who entered AS after having graduated general high school, went to colleges after graduation from AS. All participants have led their life actively and independently keeping reflecting on issues and problems they faced and pursuing alternative values that they learned at ASs. Their alternative values and lifestyles have been realized in the middle of interactions with significant others like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friends, and colleagues who are in sympathy with the values and lifestyles.

Key Words: alternative school, experience of alternative education, the life of graduates from alternative schools, life history, holistic-content approach